

<위씨오세삼난현행록>의 특이성*

송성욱**

I. 서론	IV. 장면 구성의 특이성
II. 제목, 분권, 회장	V. 창작 의식과 작가층
III. 서사 구조의 성격	VI. 결론

I. 서론

<위씨오세삼난현행록> 1)은 아직 연구가 되지 않은 작품이다. 김기동에 의해서 간략한 줄거리가 소개된 바 있는데²⁾, 그것마저 소략하여 작품의 대강이라도 알 길이 없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기획한 『장서각고소설해제』에서도 해제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위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위씨>는 27 권 27 책으로 총 길이가 688장인 작품으로 장서각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매면 10행 각 행당 25~29자 궁체로 상당히 깨끗하게 필사되어 있다. 보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며 꽤 고급스러운 紙質을 가지고 있어, 일반 여염가의 소설책이 아닌 듯한 인상을 한 눈에 받을 수 있다.

* 본 논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2002년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가톨릭대학교 교수, 고전문학

1) 以下 <위씨>로 지칭함

2)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1981).

異本으로는 표제가 <衛氏賢行錄>이고 권수제가 ‘위시세덕록’으로 되어 있으며 27권 27책으로 구성된 작품이 있다. 전체적인 장수는 <위씨>보다 많지만 매면이 9행, 13~14자로 되어 있어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데 궁체가 아닌 일반 여염체로 조약하게 필사되어 있다.

<위씨>는 상당히 특이한 작품이다. 얼핏보면 일반적인 대하소설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간 중간에 불속 뒤에 나오는 특이한 장면 묘사,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인물의 출현, 기대되는 진행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작품 전개 등 특이한 곳이 하나 둘이 아니다. 습작이 아니면 대하소설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려 했던 작품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려 했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매듭을 맺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습작의 성격이 농후한 특이한 작품으로 남아 있다. 다만, 여타의 대하소설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장면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적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작품이다. 나아가 조선시대 궁궐 종사자가 직접 소설의 창작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짐작을 할 수 있어 관심이 가는 작품이다.

<위씨>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전혀 없는 까닭에 이 글에서는 <위씨>의 전반적인 특징과 성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II. 제목, 분권, 회장

<위씨오세삼난현행록>은 우선 제목부터가 특이하다. 이것만 보아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표제에는 ‘魏氏五世三難賢行錄’이라고 되어 있다. 한자를 본다면 위씨 집안의 오대 걸친 여러 사건을 서사화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작품 내용은 위현의 8남매 이야기로만 구성된다. 이들 8남매는 세혁, 세영, 세창, 세병, 세황, 옥난, 경난, 금난 등이다. 그렇다면 ‘오세삼난’이라는 것은 5子3女로 구성된 이 남매들을 지칭하는 것이며 ‘세’와 ‘난’은 이름의 항렬자를 고려한 것이다. 여자 이름의 항렬자에 ‘難’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왔다고 할 수 있다.³⁾

<위씨>는 회장체 소설의 형식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전체 37회로 구성된 작품

이다. 회장 제목은 6장의 <표>에서의 같이 8언대구인 경우와 7언대구인 곳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아래의 예와 같이 한 회장이 끝날 때마다 다음 회장의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어 애초부터 회장체 방식으로 기획된 소설임을 짐작하게 한다.

아지못게라 요인의 작열이 이러듯 흥참하니 널부의 방신이 장춧 평안헌가 차간하회분 히라⁴⁾

아지못게라 군흥의 죄악이 바야흐로 베프러 장춧 엄문헌여 하니 아지못게라 군흥의 죄악이 바야흐로 나트나니 습인의 원왕이 과히 신설헌가 흥회 석남하라.⁵⁾

흥미로운 것은 분권과 회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한 권이 3개의 회장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한 권이 1개의 회장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다. 혹은 한 회장이 여러 권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6장의 <표>에서 정리했듯이 한 권의 끝이 회장의 끝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그다지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원래는 회장으로 기획되고 창작된 작품을 다시 권의 체제로 재편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한 예로 권7, 권8, 권18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권7 : **직설** 초공이 티왈 이는 우리 문호의 영만함미 극진하고 성은의 호탕함 시미 과도한 연괴라.

권8 : **직설** 하양궁 늑흔 동산의 스위 명공이 엇계를 곁와

권18 : **직설** 위공 등이 신방으로 퇴귀하니 소제 단의흥군으로 슈병을 의지엇든가

3) 이본에는 표제가 ‘衛氏賢行錄’, 권수제가 ‘위시세티록’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위씨>에서도 권4, 권11의 경우는 권수제가 ‘위시세티록’으로 되어 있다.

4)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8.

5)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10.

모두 ‘재설’로 시작된다. ‘재설’이라는 장면 부호는 대개가 새로운 사건이나 시간적으로 큰 변이가 있을 때 사용되는 비교적 큰 장면 부호이다. 그런데 권6은 권6에서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시작되고 있다. 권8은 권6에서 설정된 잔치 상황의 연장이다. 또한 권8은 전권에서 설정된 혼인 장면의 연장으로 혼인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방으로 행차하는 대목이다. 이런 대목에 모두 ‘재설’이라는 장면부호가 사용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장면부호가 들어갈 부분이 아니며, 권이 나누어질 부분도 아니다. 특히 권18의 경우는 위의 인용문 7행 뒤에 다시 ‘재설’이 나온다.

직설 서소제 즈기 디괴를 지너미 속절업시 삼년이 훌훌하야 네제를 임의 므춘
디라 소저 남미 확연이 비통하며 추년이 감상하며 이씨 더 시로온디라.

상당히 오래전에 설정된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다.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의 전이라 할 것이다. 정상적인 분권이라면 바로 이 부분부터 새로운 권이 시작되었어야 했다. 그 끝과 시작에 분명한 매듭이 있는 회장과 큰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회장체로 기획된 것을 막연히 분권만 한 것이 아니라 ‘재설’ 등의 부호를 삽입하여 형식로나마 분권의 체제를 갖추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한편 작품의 내용과 말미 부분에는 이 작품의 파생작과 속편이 있다는 말을 한다. 후술되겠지만 권12에는 삽화적 인물인 경어사의 딸이 장생의 딸과 혼인한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건 설정이 없이 “후일의 경당양문이 셔르 혼취하야 층층흔 인친과 겹겹흔 혼취흔 힝적은 **경장양문록** 중의 잇느니라”라고만 서술되어 있다. <경장양문록>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가하면 말미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후록에 대한 기록이 있다.

‘각노 오형데 작위 점점 승고하야 인인이 터정의 올나 황비를 응거하고 초공
과 참정이 여러번 출정하야 괴이흔 공을 만히 세워 왕작을 봉하던 스적과 층
층흔 즈녀들의 혼취하던 설화는 다 후록의 잇느고로 드시 기록디 아니하노라’

위의 내용을 따르다면 후록에는 <위씨>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본격적인 활약상

과 그 자식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후록이 있다고만 하고 그 제명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이 작품을 창작하거나 필사할 당시 후록이 실재 존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점을 미루어 본다면 <경장양문록>에 대한 부분도, <명주옥연기합록>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작품인 <소현성록>을 파생작으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하소설 서술과정의 한 관행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III. 서사 구조의 성격

1. 갈등 구조의 특이성

<위씨> 역시 여타의 대하소설과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작품이다. 위씨 집안 8남매 중,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 있는 인물은 세영, 세창, 세병이다. 장남인 세혁 부부에 대해서는 권에서 소운의 딸과 혼인 후 금슬이 좋아서 8자 7녀를 두고 백년해로했다는 요약적 제시만 나오고 있다. 이후에 세혁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가 미미하다. 그러면 세영의 경우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제 2자인 세영은 일찍이 태우 경철이 딸인 경소저와 혼인을 하지만 아무런 이유없이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던 중 기생인 향월을 첩으로 맞이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소경화의 딸 소소저를 재취로 맞이한다. 소경화는 소주 사람으로 양선이란 도적의 난을 맞아 의병을 일으켰다가 양선에게 잡혀 죽은 사람이다. 소소저는 남북개착하여 숨어 있다가 도적의 난을 진무차 내려온 세영을 만나게 되고, 경사로 올라와 혼인을 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대하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특히 지방 출장 중에서 남북개착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신원이 확인된 다음 혼인을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정형적인 단위담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위씨>에서는 이러한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마땅히 있을 법한 갈등이 보이지 않는다. 세영이 경소저를 박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갈등을 예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

화는 본격적인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세영은 단지 아무 이유없이 경소저를 박대하고, 경소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원망이나 한을 품지 않고 있다⁶⁾ 특히 세영이 기생 향월과 같이 지내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갈등이 설정되지 않는다. 작품에서는 이것을 단지 하늘이 정한 운수라고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소저를 재취를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갈등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대개의 경우, 혼사를 둘러싼 부자갈등이 있거나 여성이 윤리적 혐의로 인해 혼인을 기피하는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⁷⁾ <위씨> 오히려 세영 자신이 소소저가 여성이었음을 알지 못한 자책감을 느끼며, 그것을 부친이 위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물론 이 혼사를 먼저 주장하는 사람도 부친인 위형이다.

제 3자인 세창은 조현승의 딸 조소저와 혼인을 한다. 조소저는 소소저를 남자로 알아 서로 혼인을 한 여자이다. 그리고 소소저가 세영을 따라 경사로 오자 같이 올라온 여인이다. 뒤에 소소저가 여자임이 밝혀지자 부친이 직접 나서서 세창과의 혼인을 주선했다. 세창은 형 세영이 소소저와의 혼인이 결정되자 빨리 혼인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기도 한다. 형에게 혼인을 주선했다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이런 세창에 대해 한 차례의 꾸지람도 없이 곧바로 조소저와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동성끼리의 혼인이라는 상당히 특별한 사건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아무런 갈등 없이 손쉽게 해결되는 혼사로 설정된다. 세창은 이후 가시랑의 딸인 가추월을 재취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역시 별다른 갈등이 없이 혼인이 이루어진다.

<위씨>에서는 갈등의 부각을 통한 흥미보다는 혼인 信物에 대한 기묘함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소소저와 조소저는 장오라는 장사치에게서 비취환과 황금팔찌를 구입하게 되는데, 모두 짝이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가시랑의 모친 하씨는 하태후의 친동생이었는데, 하태후가 옥천동 중의 제 3자의 부실되면 좋다는 꿈을 꾸고 옥린 한쌍을 주며 짝을 찾아 혼인하라고 하였다. 이 신

6) “소데 경시로 버부러 임의 가희 성닐 일이 업스미 반드시 서르 스랑흔는 정의 이시미 덧덧흔 일인 지라 소데 쏘흔 엇지 아디못헝리잇고마는 홀연 혼취흔 후로 의신 낙낙하야 비록 강잉코져 하나 무가늌하라. 소데 경시의 즈식이 엄미헝미 소시의셔 승흔며 경시의 덕성이 뇨도헝미 소시의셔 승흔 줄은 모르디 아니 헝디 소데의 미음을 소데 강잉코져 하나 미음이 강잉치 아니헝는지라”(권3).

7) <위씨>에서는 소소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윤리적 혐의를 지니고는 있지만 혼인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나아가지 않고 있다.

물들은 모두 위씨 집안의 세전지보로 자식들의 혼인 신물로 삼고 있는 물건들이었다. 작품에서 세영과 세창의 혼인은 모두 이 신물들이 기묘하게 결합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고 못하고 있다.

제 4자인 세병 역시 신물이 매개가 되어 병부상서 여양의 딸과 정혼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경우는 “형의 집 길스는 엇지 이러듯 공교히 회합하느뇨”와 같은 주위 사람의 평가가 따를 정도로 신물의 기묘한 결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세병은 여소저와 정혼을 한 후 하양공주의 부마로 발탁된다. 주인공이 정혼 후 부마로 발탁되는 늑혼담 역시 대하소설에서 설정빈도가 높은 단위담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이야기에는 당연히 정혼녀와 혼사를 물리칠 수 없다는 심각한 군신갈등이 따르게 되고, 공주와 혼인을 한 후에는 심각한 부부 갈등이 수반된다. 그러나 <위씨>에서는 천자가 세병을 부마로 지목하면서 아예 공주와 혼인 후 여소저와 다시 혼인하여 부실로 삼게 하라는 명을 같이 내린다. 그러니 군신갈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지고 대신에 신하의 처지를 잘 헤아리는 천자의 덕성만 강조될 뿐이다.

혼사의 과정은 순조롭지만 혼인 후 부부갈등이 설정될 수도 있다. 세영, 세창, 세병이 모두 복수의 처를 거느리고 있는 만큼 쟁총형 갈등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조선시대 소설에서 복수의 처첩을 설정하는 이유 역시 이 쟁총형 갈등을 만들어서 가부장제와 관련한 어떤 문제의식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씨>에서 설정된 위의 여성들은 한결같이 빼어난 미모와 현숙한 부덕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다. 일처와 이처 사이에 사소한 다툼도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할 뿐이다. 위씨 집안 여성들 중 유일한 첩인 세영의 첩 향월의 경우도 나중에는 세영의 죽을 위기를 몸소 구하는 은인으로 설정될 정도이다.

이와 같이 <위씨>에서는 적어도 주인공 가문 내부적으로는 한 명의 악인형도 설정되지 않는다. 작품의 이러한 성격은 다시 천자의 성격으로까지 이어진다. 앞서 세병의 혼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천자는 조정에서 간신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간파하여 주인공 가문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방지한다. 강남에서 수적이 창궐하여 세영의 출장을 결정짓는 자리에서 정창호란 위인이 세영을 참조하는데 천자는 충신을 참조한다고 하여 오히려 정창호를 유배가게 한다.

그런 까닭에 작품의 시대적 분위기는 항상 태평성대로 기술된다.

티악과청수전낭하니/ 화선경괴속원앙이라// 시년귀티보옥제홀식/ 시천금누봉
 두해라//
 계전적두의남초호야/ 소습황금십이츠라// 너고종두스무의하니/ 일변시박일변
 의라//
 직인특지신장너하니/ 요칙춘삼화유지라// 관현성급만중디하니/ 궁녀장구야연
 시라//
 호시성인친착득하시니/ 변정농목소쌍미라⁸⁾

이런 태평성대를 맞이하여 천자가 여러 신하들과 태호에서 수상유람을 하고 있는 풍경을 작가 스스로 위의 인용과 같이 제법 긴 시로써 표현하기까지 한다.

한편 수적을 평정하기 위해 강남으로 내려간 세영은 한 차례의 격문을 통해서 적장 기호준을 교화시킬뿐더러 아예 탁용할 것으로 천자에게 권한다. 그리고 천자는 병수상서로 제수한다. 아무런 공이 없는 도적의 괴수에게 이런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상식밖이다. 그리고 이 적장 기호준은 위씨 집안의 만사위가 된다⁹⁾ 따라서 작가는 철저하게 갈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완전히 갈등이 없는 작품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구성으로 인해서 <위씨>에서의 갈등은 지속적인 긴장감을 유발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갈등의 해소 과정마저도 단순하게 처리되어 전혀 극적인 느낌을 주지 못한다. <위씨>에서 본격적인 갈등은 세창 부부의 갈등과 외부인의 음모에 의한 위씨 가문 전체의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세창 부부의 갈등도 사실은 외부인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외부인의 음모는 원인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의 갈등 전개 양상은 부부 자체의 문제이다. 외부인에 의한 음모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고찰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서는 세창 부부의 자체적인 갈등 양상만 살펴보기로 하자.

세창은 미희에게 홀려서 조소저를 구박하고 음란한 여자로 오인하게 된다 이때부터 이들 부부의 불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 불화가 장면화되지는 않는다. 이후

8)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6.

9) 이 역시 신물이 매개가 되어 있다.

에 조소저의 부친이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게 되고, 조소저 역시 음란한 여자라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불화의 본격적인 장면화는 조소저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조소저는 적소에서 다짐하기를 향후 시가에 가지 않을 것이며 평생 친정 부친을 모시고 수절할 결심을 먹게 된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편지 한통으로 인해 마지못해 시가로 돌아온다. <위씨>는 이 시점부터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세창과 조소저의 내적 고민과 갈등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불화의 장면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이 불화는 다시 세창이 본의 아니게 가소저를 재취로 맞이하면서 더욱더 깊어진다. 조소저는 그동안 세창에게 쌓인 원망과 친정 부모에 대한 사친지회로 인해 병에 걸려 며느리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리게 된다. 조소저는 주위에서 ‘투기’라는 혐의를 받는 지경까지 처함으로써 더욱더 곤란한 지경이 이른다. 시어머니가 와서 경계를 하고 세창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고 뉘우쳐도 조소저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¹⁰⁾

이 정도가 이 작품에서 설정된 유일한 부부갈등이다. 여타의 대하소설에 비한다면 갈등의 정도가 깊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갈등은 황태후의 생신잔치를 맞이함으로써 해결된다. 황태후가 위씨 집안의 모든 여자들을 잔치에 초청했는데 세창이 조소저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조소저의 냉담함이 가소저와의 혼인 이후 더욱 심해졌다고 하자 조소저가 두 말도 하지 않고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망한 갈등 해결 국면이다. 조소저는 자기가 단지 ‘투기녀’로 몰리는 것이 싫어서 태도를 바꾼 것인데, 조소저의 행동이 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거론된 바가 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투기녀’로 몰리기가 싫어서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구구절절한 조소저의 내적 고뇌에 비하면 설득력이 없는 논리이다.

<위씨>에서 갈등의 설정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애초에 갈등을 억제하면서 작품을 구성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작품의 서사적 구성이 대단히 삽화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10) 조소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세창이 자기를 천하게 여겼다. ② 여자의 귀향살이는 남자와는 달라 더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으나 부모 때문에 못 죽었으니 이제는 부모 곁에서 종신하겠다. ③ 여자는 몸에 조그만 죄가 있어도 문제인데, 하물며 자기의 죄는 막중한 것이다. ④ 이미 가증 대사인 두 건의 혼인을 폐했으니 이제 다시 처신할 날이 없다.

2. 삽화적 경향의 극대화

우선 <위씨>에 설정된 가장 큰 갈등이라 할 수 있는 외부인의 음모에 의한 위기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음모는 세영을 참소했다가 도리어 유배를 가게 된 정창호의 식객 경옥의 등장과 더불어 설정된다. 경옥은 정창호의 원한을 풀고자 시어사 김현, 윤석 등과 모의하고 하양공주의 상궁인 경낭을 동참시켜 위씨 가문 전체를 도모할 계획을 세운다. 경낭이 자객이 되어 직접 세영을 죽이고자 했다가 발각되어 실패한다. 한 동안 망설이다가 세창 부부를 음해하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이에 조소저를 음란한 여자로 몰기 위한 간부서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것도 여의치 못하자 경낭으로 하여금 세창을 유혹하게 하고 미혼단을 먹여 정신을 혼란시킨다. 그리고 개용단을 먹고 세영으로 변하여 동생이 처인 조소저를 사랑하는 것으로 꾸민다. 그런가 하면 위씨 집안의 만사위인 기상서와 조소저의 부친을 역모로 몰아서 유배를 가게 한다.

대하소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모의 설정 방식에 충실하다. 다만 음모의 동기가 너무 박약하다. 정창호의 원을 풀기 위해서라고 하고는 이후에 정창호는 한번도 문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경옥이 처음으로 접근한 김현과 윤석은 아무 이유없이 위씨 가문의 영화가 싫은 인물이다. 따라서 음모의 대상도 특정한 인물로 고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음모의 과정에서 맛볼 수 있는 긴장감이 삭감된다.

두 번째 음모는 권23에서부터 간신 엄송의 득세와 더불어 설정된다. 갑작스러운 등장이다. 정치적 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간신 엄송이 등장하고 그토록 총명하던 천자가 갑자기 총명이 흐려진다. 이때, 권5에서 등장했던 가추옥이 다시 등장한다. 가추옥은 세창의 2 처인 가추월의 언니로 동생의 혼인을 시기하고 있는 여자이다. 무려 8권의 내용이 진행될 동안 한번도 거론되지 않던 인물이, 엄송의 설정과 더불어 다시 등장한다. 어떻게 보면 교묘한 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작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가추옥은 김현의 여동생인 김씨와 더불어 가추월을 모해할 계교를 마련한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세창이 처가 되겠다는 의도이다. 그런데, 이 음모에 조소저는 완전히 빠져 있다. 세창의 처가

되기 위해서는 조소저 역시 방해물인데, 동생인 가추월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때, 엄송의 아들 엄세번이 미희를 구하고 있었는데, 김씨가 엄송의 문인이 조문화와 결탁하여 가추월과 세황의 처인 서소저¹¹⁾를 탈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교는 위현이 미리 방지함으로써 무산된다. 엄송은 이 화를 풀기 위해 곧바로 위씨 집안 모두를 역모죄로 논핵하여 국문을 열게 한다. 그리고 위씨 제공들은 역모죄로 몰리고 이중 세영은 유배를 가게 되고 나머지는 본향에서 軟禁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천자가 갑자기 총명이 돌아와 신하에게 엄송을 탄핵하라고 하고, 엄송을 국문함으로써 해결된다. 어느 날 밤에 하양공주가 보고 싶다고 말한 황태후의 말이 천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에 경연에 참가한 신하가 세영의 충심을 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엄송을 논핵하는 상소장이 올라 왔을 때, 마침 자리에 있던 가소저의 부친 가시랑이 엄송의 미녀 탈취 사건을 말함으로써 연루된 죄인들이 모두 잡혀오게 된다. 그리고 가추옥은 이때 이미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사망한 상태였으며, 김씨는 개관천선한 상태였다 설정된 음모의 양과 그로 인한 주인공 집안의 위기도에 비해서는 해결 과정이 너무 단순하게 처리되어 있다. 따라서 경옥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서사적 긴장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갈등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 구성과 아울러 작품 중간 중간에는 전체적인 내용과 유기적인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사건들이 설정되기도 한다. 물론 간단한 사건은 얼마든지 삽입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서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어사의 존재이다. 경어사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지니고 지방을 순찰하고 있는 존재로 위씨 집안과 필연적인 인연을 맺는 인물이 아니다. 경어사는 부친인 경공은 소부인과 경부인이라는 두 처가 있었는데, 이중 소부인은 위혁의 처인 소소저의 고모이다. 경어사는 경부인의 소생이다 위혁의 처 소소저는 권1에서 혼인을 했다는 사실 외에는 이제껏 한번도 문면에 등장하지 않는 여인이

11) 김씨는 서소저의 부친인 서시랑의 후처인데, 서소저 남편을 쉴 새 없이 구박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위씨 집안은 자기의 올아버인 김현을 죽인 원수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 원한이 고스란히 서소저에게 가 있는 것이다.

다. 많이 등장한 소소저는 세영의 처 소소저이다. 그리고 세영의 1 처인 경부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경어사의 설정은 독자들에게 상당한 혼선을 불러오게 만든다.

경어사는 순무 도중 두 차례의 옥사를 해결한다. 권12의 내용 전체와 권15의 두 번째 회장부터 권16까지의 내용이 모두 경어사가 옥사를 다스리는 과정으로 채워져 있다. 두 차례의 옥사는 모두 복잡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전체 이야기 진행과는 어떤 유기적 결합을 지니지 못한 독립된 삽화로 머물고 만다.

한편 기호준은 유배를 갔을 때, 적소의 태수인 석태수의 양자 석공자가 세병의 둘째 처인 여소저의 동생임을 밝힌다. 이 이야기 역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자기의 본성을 찾은 여공자(석공자)가 석태수와의 문제로 고민하는 장면이 설정된다. 그런데 이후로 석태수의 존재는 더 이상 설정되지 않는다. 양육한 부친과 낳아준 부친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양육한 부친을 이후 서사적 문면에서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석태수의 존재 역시 하나의 삽화로 머물고 만다.

물론 삽화적 구성은 소설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 명말청초의 중국 소설 중 <巫山艷史> 등의 염정소설이나 <警世陰陽夢> 과 같은 時事小說은 구성이 산만하고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중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출현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일회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다고 한다.¹²⁾ 그러나 이런 소설들은 복잡하기만 하고 통일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삽화적 경향의 소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각기 동떨어져 보이는 삽화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묶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주인공이 암행어사 집단이라거나 경어사와 같은 단일한 주인공이 순무를 하는 과정이라는 일관된 동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씨>에서는 그러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위씨>의 이러한 삽화적 경향은 인물의 이름이나 벼슬이름을 설정하는 방식과 맞물려 더욱더 심해진다. 우선 작가 스스로가 인명을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위씨 일문이 엄승에게 역적으로 몰려 국문을 받는 대목이다.

12) 최수경, 「명말청초 소설 형태의 변화」, 『중국소설논총』12 집(2000) 참조

“**세영**이 엄엄흔 기운으로 잠간 정신을 거두어 옥졸의게 붓들여 나와 도로혀 죽지 못흐므로써 불쾌히 너기고 (중략) **승상**의 당체 문이 상하야 형식이 위급흐를 보고 심시 천연하여 **승상**드려 닐러 글오디 (중략) 사름이 전하야 이 르디 턴위 썰니 더하샤 장춧 **초공**을 형쥬흔드 하니¹³⁾”

밑줄 친 ‘세영’, ‘승상’, ‘초공’은 모두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지칭하고 있다. 특히 ‘세영’과 ‘승상’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인명인데, 갑자기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승상’이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위씨 계몽들 중 가장 먼저 국문을 받은 사람은 위세혁이었고, 그 나머지의 국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만 하였다. 그리고 이 세혁의 초사 내용이 곧바로 엄송을 공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자와 엄송의 큰 분노를 유발시켰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에서 이 강개한 초사로 인해 죽을 위기에 놓이는 사람은 세혁이 아닌 세영으로 설정된다. 이때부터 작가는 인명 사용에 줄곧 혼선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조정 신하들을 거론하는 자리에서 이름과 벼슬명이 단 한번만 거론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으며, 병부상서 직함을 받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기호준이 병부상서로 제수된 이래 여러 사람들이 이 벼슬을 제수받는다. 이로 인해 병부상서라고 했을 때,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기가 혼란스러울 정도이다.

이런 결과들을 종합한다면 <위씨>는 확실히 삽화적 경향이 농후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습작기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만 하고 말 것은 아니다. 대하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단히 독특한 장면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특이한 장면구성 역시 작품의 통일성을 흐리고는 있지만 작가가 노리는 새로운 창작 경향의 일단을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소상히 논하기로 한다.

13)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5.

3. 장면 구성의 특이성 - ‘儀軌’류의 적극적 활용

<위씨>의 장면 구성은 읽는 사람을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독특하다. 앞 뒤 내용과 관계없이 갑자기 끼어들어 오는 單役이 많은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다른 기획의도가 내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장면 묘사가 아무런 기획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① 친문호실시 좌우의 시위호 갑시 녹천인시오 창티보졸이 일만인시오 너외 작문의 환위호 보군이 삼만인시오 금의 위관 십이인이 나졸 삼천인을 거느려 던계 아티 버리시며 좌우 승상과 좌우 통정과 한님혹스와 시독혹스와 중서사인과 집현턴 혹스와 시강혹스와 한님검토와 한님전슈와 감찰어스와 던등시어스와 십삼싱도어스와 지금의위스 등이 차례로 시립호야놀 상이 문스랑을 명호야 문목을 쓰여 곶으샤디¹⁴⁾

위 인용문은 국문장의 모습이다. 호위대의 종류와 나열된 군졸의 수, 참여하는 신하들의 벼슬명이 기록되어 있다. 국문하는 천자의 주위 모습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천자의 추문장 내용과 죄인의 모든 초사 내용이 별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상이 본티 신묘호신 괴국지술을 제왕 귀척으로부터 아티로 너시 제관이 막 감양팡이어날 금일 여명이 쏘한 감당치 못호리로티 여명이 쏘호 괴술이 쏘호 등한치 아닌지라. 습가 쥬턴도수를 안호여 의장을 비포호며 괴세를 성년호야 년호야 세판을 이권지라. 상이 크게 괴이히 너기샤 이의 여명드려 널으샤디 덤이 쏘호 만괴지가의 혹 괴국을 시험호 비 이셔 일즙 털오환늑과 요습지철호는 술을 알미 잇는지라¹⁵⁾

이 인용문은 천자가 수상유람을 할 때, 신하들과 내기 바둑을 두는 장면인데

14)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7.

15)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6.

내기 바둑이라는 사건 설정도 특이할뿐더러 바둑 자체에 대한 묘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의 장면 묘사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과거장의 모습, 장원급제 행렬 장면에서도 위와 비슷한 방식의 묘사가 나온다. 아울러 편지, 상소문, 비답내용, 격서 등 다른 서식들도 어김없이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대개가 별행의 형식으로 기재된다.¹⁶⁾

그런데 이러한 장면 묘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우선 세영의 처 소소저가 남북개착하고 있을 당시 물건을 팔러 온 보부상의 행장에 대한 묘사를 보자. 다소 장황하지만 특이한 장면이라 인용을 하기로 한다.

③ 되랑 왁 보혜 이러툃 흐면 흐변 구경흐기를 원흐노라 당외 즉시 힘니를 열고 보화를 너여 뵈거늘 대량이 보니 상모 일빅 오십팔근 소파리주자 오빅환 마되주아 일빅환 호박주요 일빅환 슈정주요 일빅환 산호주요 일빅환 금픽주요 일빅환 밀화주요 일빅환 상아주요 일천환 화스주요 일빅오십구환 서각의 십근 상아 습십근 진남석 이십근 침석 십오근 되침 오만봉 증침 오빅구십봉 썩즈 일빅기 둔목 오만근 전모 팔십부 도침종 일빅개 호박장자 일빅개 결총모즈 일빅개 면분 일빅개 면년지 일빅기 납년지 일빅기 우각합요 일빅기 슈침 일빅본 녹각합요 일빅개 조목소즈 일빅개 황양목소즈 일빅개 되비즈 일빅개 밀비즈 일빅개 사피침통요 일빅개 눈도즈 스십개 되도즈 일빅개 쏘즈 일빅개 은장도 일빅개 금장도 일빅개 잡습픽도즈 천개 지지도즈 오천개 빵갑도즈 일빅팔십구개 오건전지도즈 십부 상기 십부 빵늑 십부 되기 십부 소쥬금냥 오천개 전츠 오빅개 인도 오빅개 추즈 일빅개 퍽근칭즈 오십병 되포 일빅필 소단즈 일빅필 화양단즈 일빅필 당녕 오빅개 면경 일빅개 되스경 일빅기 명마 오십필 마녕 일빅과 감털도환 일빅개 퍽양피 일빅영 슈달피 십오영 우피 오빅영 제피 퍽녕 촉모피 오십영 화털 일빅개 년즈 오빅면 면목 오천파 모시 상셔 쥬역 논어 밍즈 쇼흐 증용 네기 팔디가한문누문 통감강목 즈치통감 정관정요 습국지 슈호지 표제소흐 어빅단 오십통 총빅단 오빅통 월빅단 십필 천정단 십필 석청단 십필 뉴청단 십필 초록단 십필 잉가늑단 십필 흑늑단 십필 남송단 십필 북송단 십필 관늑단 십필 압늑단 십필 아청단 십필 아청늑단 십필 뉴욕단 십필 분홍단 십필 박은홍단 십필 도홍단 이십필 되홍단 십필 진홍단 십필 응

16) 특이하개는 공주의 혼인을 알리는 천자의 告書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빅필단 십필 회식필단 십필 장식필단 십필 지츠티필단 십필 침향식필단 십필 선
 황필단 십필 아황필단 십필 주황필단 십필 뉴황필단 십필 이갈피단 십필 밀갈
 필단 십필 오복화당 오십근 팔보당 팔십근 빙당 스십근 즈당 오십근 건포도
 십오근 과쇄노포도 십오근 섬나포도 십오근 공작우 오빅개 관빅우 오빅개 공
 작 오쌍 턴아 오쌍 금계 팔십슈 너오 십필 나오 십필 윈 십오필 잉무 오쌍 빅
 즈 팔십건 화살 오십건 전넉 오십부 필통 오십부 필산 오십부 초오 오십개 습
 전 오빅과 왜션 오빅과 호로 오빅포 빅반 오천근 경딴 팔십건 금지환 오십딴
 옥지호나 십기 밀화지환 오십기 마뢰지환 오십기 금뢰지환 오십기 파려지환
 오십개 슈정지환 오십기 호박지환 오십딴 초피 오년 인습 오십근 황년 오십근
 사향 오십근 녹용 오십근 빅복영 오십근 웅담 오십근 석뉴황 오십근 텃청 오
 십근 주샤 오십근 주홍 오십근 경면주스 오십근 도황 오십근 석우황슈말 오십
 근 금녕 오십기 황금이당 오십기 봉관 이십부 하리 이십부 픽옥 이십부 납축
 오십봉이오 **기증 황금팔쇠 한 짝과 비취지환 한 짝이 제양이 기교하고 광치
 찬란하야 진짓 희귀호 보물이어늘**¹⁷⁾

보부상이 팔기 위해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 대한 목록이 세밀하게 조목조목 정
 리되어 있다. 보부상 장오는 행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와 같이 많은 물건을 가지
 고 다녔을 리는 없다. 따라서 다소 과장된 목록이라 하겠다. 이 장면은 다 읽지 않
 아도 밑줄 친 부분만 알면 앞 뒤 내용 파악에 전혀 지장이 없다. 후술하겠지만 이
 목록들은 아마도 어떤 ‘儀軌’류에 기재된 목록 조항을 부분적으로 옮기고, 여기에
 다가 작가가 알고 있는 다른 품목들 예컨대 인용문에 나오는 ‘삼국자’ 등의 책명
 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④ 능허호 가온딴 군스틀 모와 향오를 편츠허여 디를 지을 시 오만군줄노 오
 부단영과 오스오초로 준흐니 좌영의 전스 후스 증스 우스 좌스요 증영의 전스
 좌스 증스 후스요 전영의 증스 전스 좌우 스후 스요 우영의 좌스 증스 후스
 전스 우스요 후영의 증스 우스 좌스 후스니 믹 스의 각각 최 잇고 믹 최의 각
 각 디 잇고 믹 디의 각각 괴이시며 호준은 그 가온딴 거허여시니 년괴 계유
 이십의 지락이 출뉴허며 각영 밍장이 진중의 포렬허여시니 그 슈를 헤미 곱온

17)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

//(필자 주: 행이 바깥) 전영장 기호준은 년이 이십이니 전영 휘호군 일만삼천 인이오 즈술군 습만인이오 천중군 오천스백인이오 파중군 일천륙백인이라 전 영좌부천총 즈적홍은 연이십구요 우부천총 원청운 년이 이십구요 중부천총 도마는 년이 이십오요 전부천총 가적은 년이 이십륙이요 후부천총 주황은 년 이 이십구요 전영좌부 전스파총 마병은 년이 이십팔이요 후스¹⁸⁾ (후략: 이하 각 휘하 진영의 군사 수가 장황하게 나열됨)

이 장면은 강남의 수적 기호준의 군영에 대한 묘사이다. 대열의 배치 상태와 각 휘하 장수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이후에는 각 하부 대열의 군사 수가 장황하게 나열된다. 기호준은 중요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니 그렇다 하더라도 서사의 진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장수의 이름과 나이까지 소개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어떤 진법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 여기에 가상의 인명을 부여하여 구성된 장면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하양공주가 혼인을 하는 장면은 114장에서 159장까지 무려 45장(90쪽)에 걸쳐 묘사가 되어 있다. 혼인행렬, 신부의 복식, 공주를 옹위한 상궁들에 대한 설명, 하객들의 자리 배열 상태, 합환례 절차, 현구고지례 절차 등 혼인에 관한 의례한 대목을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이다. 혼인 장면이 시작되는 첫 부분만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⑤ 시각이 니르미 스테티감이 공주의 교비위를 곤정던 서벽의 동향호야 비설
 하고 부마의 교비위를 동벽의 서향호야 비설하고 상영위를 동서 합외의 베플
 고 수주당을 동서 계상의 비설하고 화륜을 덩계상의 비설호미 상이 잇고 찬안
 위를 영너 동서의 비설하고 찬안을 영너 좌우의 비설호디 저기 남녘으로 호야
 서르 향호게 호고 축디를 동서의 비설호디 북향으로 호고 산호상을 낭위전의
 비설호고 옥동을 좌우의 비설호디 ㄷ 남향호야 동으로 우홀 호고 모란비취병
 을 북벽의 비설호고 흥개 혼 빵은 동서 계 우회 비설호고 혼산흔 빵은 던너
 좌우의 세우고 봉선 네 빵을 그 동서의 베플고 작선 네 빵은 그 좌우의 잇고
 곡개 십 빵은 던당 좌우의 잇고 현무당 빅호당은 우편 길의 버려 세우고 청농
 당 주작당 등 스당은 좌편 길의 버려 세우디 ㄷ 십 빵이오 은월부 금월부는

18)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

던덩 좌우 길의 각각 십오 뺑이오 은뺑과 금뺑과 각 오 뺑과 금작즈 은작즈
 각 십 뺑은 좌우의 잇고 금황과 음황과 각 오 뺑은 동서의 잇고 금장도 은장
 도도 동서의 이시디 쏘흔 오 뺑식이오 금우관등도 쏘흔 좌우의 이셔 흔가지로
 락등의 버려 세웠고 고악헌가를 던덩 동서의 베플며 녀령집스위는 계상 동서
 의 베프디 드 거들쭈 노복으로 우홀흔고 진국공 봉흔는 고명과 공주비필 덩흔
 는 도셔 악츠를 던 계상의 비설흔디 동향흔고 부마 공주 비위를 정 계상의 비
 설흔디 당 줌흔여 동으로 우홀흔고 향안을 정계상의 비설흔고 황양산 하나흔
 자편 길의 비설흔고 황개 일 뺑은 좌우의 세우고 의장도 좌우의 버리고 빈길
 위는 동서 계상의 비설흔고 찬안위는 동 계하의 (비설 생략) 헉고 찬상위는 동
 계상의 (필자주:비설)헉고 던인위는 동서 계하의 (필자주:비설)헉디 드남의 이
 시나 저기 물너가게 헉고 거안자위는 동서 계하의 헉고 궁관궁녀궁노궁기궁
 비 참흔흔는 위는 동서 계하의 비설흔고 통창위는 동서 계하의 비설흔고 던날
 거휘위는 계상의 비설흔디 동으로 우홀흔야 비설헉기를 계유 드헉미 시긱이
 임의 니른지라. 썩의 승상이 종족과 즈부를 거느려 닥스는 부인이 쥬장헉고
 외스는 승상이 쥬장홀시 이날의 부인이 공주 의표덕용을 밧비 보고져 원흔믄
 목믄 것 궂틀분이 아니라니 찬네훈 상궁 소경난은 공주 악츠의 나아가 취위
 헉를 청헉고 티감 도디용은 부마 악츠 압히 나아가 취위헉시를 청흔여 합분
 외의 니르러는 찬네훈 장손 치란은 부마를 인도헉고 찬네훈 동방 락향은 공주
 를 인도헉여 비석위의 니르미 승상은 도복을 궂초고 부인은 명복을 궂초와 노
 락의 풍광이 소년을 불워야니 헉는지라 동서를 덩헉야 셔미 찬네훈 상궁이 고
 셔를 농덩의셔 밧드러 오고 고악이 압히셔 인도헉야 계하의 니르러는 악이 그
 치고 향안을 정던 당중흔야 비설헉고 던인이 봉명흔 티감과 봉명흔 상궁을 인
 헉야 압히 세우디 동향흔고 서로 우흐로 헉게 헉고 던창이 스비틀 부르니 부
 마와 공주 국궁헉미 악작헉고 스비헉미 악지헉며 선고녀관 찬네훈 녀춘옥이
 셔향헉야 고셔를 낚을시 던창이 케를 부르니 냥인이 다 케헉고 승상 부인 이
 히 드 좃츠 케헉미 선고헉야 곱오디(후략)¹⁹⁾

의궤와 같은 서적을 옆에 놓고 소설을 짓거나 의궤의 절차를 작가 외우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장면 구성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장면을 꼼꼼히 읽다보면 궁중
 혼례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19)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

<위씨>에서 이와 같은 장면 묘사의 절정은 천자가 태황태후, 황태후, 장황태후 등을 모시고 궁중연회를 베푸는 장면이다. 장황태후는 천자의 친모인데 이 장황태후의 壽宴이 벌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별도의 회장과 권을 마련하여 장장 2권(권21과 권22)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장면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긴 서술이다. 그러나 연회에 대한 절차가 의례식으로 나열되고 있어 장면임에는 분명하다. 아래에 인용되는 대목은 연회에 대한 첫 묘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⑥ 기일 명신의 녀관이 텃황티후어좌를 진설호시 북벽남향호고 황티후어좌는 동벽서향호고 황데어좌는 황티후 좌편이오 황후어좌는 황태후 우편이며 향안은 단지 남녁히 베풀고 그날 녀관이 의장을 단패 동서와 단지 동서의 난화 비설호고 녀관의 맞들며 집스호는 자는 어좌 좌우의 서고 녀악을 단패 동서의 진호디 북향호고 전안을 전 동문 맞기 설호고 반슈 비위를 중도 동서의 설호고 명부 비위를 단지의 설호디 북향호고 스찬위를 단지 동서의 설호고 스빈위를 명부 묵녁히 설호야 동서로 향호고 닉찬이인위 던닉 동서의 설호야 명뷔 궁문 박기 니르러는 스빈이 명부를 인호야 입취비위호고 연관이 장복을 궂초교 반지의 시위호는 상히 거동과 가치호고 녀시관이(후략)²⁰⁾

이 장면은 조선시대의 『進饌儀軌』나 『進宴儀軌』, 『豊呈都監儀軌』 등 의례류의 <儀禮> 부분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 『豊呈都監儀軌』에서 의례의 절차를 밝힌 부분은 “其日尙寢率其屬設…”로 시작되고 있어 ‘기일’로 시작되는 문구까지 같다. 그리고 아래에 인용한 『풍정도감의궤』의 부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침이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대왕대비의 자리를 정전 북쪽 벽에서 남향으로 설치하고, 보안을 자리 동쪽에서 가까운 곳에 차리고 향안 둘을 궁전 밖 좌우에 설치한다. 전하의 자리를 대왕대비 자리 동쪽에서 서향이 되게 설치한다. 왕비의 자리를 대왕대비 자리의 서쪽에서 동향이 되게 설치한다. 전빈이 왕세자의 자리 (중략) 女伶이 풍악을 궁전의 계단 위와 殿庭에 평사시의 같이 진설하고 왕비의 배위를 전영 안의 서쪽에 가까운 북향에 설치하고 典贊은 왕세

20)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1.

차 배위의 전정길 동쪽에 설치한다.²¹⁾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 서술되는 모든 연회의 설명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 바이다. 다만 <위씨>의 장면이 조선시대의 ‘의궤’류에서 밝히고 있는 것보다 진설되는 항목이 더 많이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한 대목만 더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⑦ 전빈이 공주를 인하여 비위의 나아가 꿇고 디치스관이 티황티후 좌전좌편으로 진당하여 꿇고 디치스하여 곶오디 공주등(은:현토형식) 공우가정십년정월초일일(하여) 초춘원정(이오) 만수성절(의) 공진회호(하고) 검거화상(하니) 경일구우(하고) 환근도야(라) 흠유즈슈소성강혜안인티티후페(는) 예지총명(하시고) 지장증절(이숫다) 숙찬니어공위(하시나) 증희누출(하고) 국아승어턴권(하시나) 경운홍기(라) 복념신등(은) 직슈심원(하고) 직명이 심슈동산의 붓그릅습고:주쌍행) 성절황가(라, 정성이 황가의 간절(하옵도다) 환츄기절(하니) 순악(은) 화늑날지춘(하고) 옥녀발상(하니) 성세(의) 계천영지운(이숫다) 신등이 불승성환성변(하여) 계슈계슈(하고) 상만만세슈(하니이다) 치스(히)를 못츠미 부복홍강복위(하고) 공궤 부복홍평신(히) 전빈니 공주를 인하여 강복위(하고) 상의 티황티후 좌전의 진당하여 승지(하)오를 궤(하)고 던츄문을 말미아마 나가 노디상의 남향하여 서고 유지(히)시를 일(하)르(하)미 인(하)여 선지 왈 여공주등 동경이라(하고) 선지(히)를 못츠미 동문으로 말미아마 환복위(하고) 티황티후 작을 드르시미 악작(하)야 소장군곡을 주(하)고 상식이 진(하)여 빈 작을 밧즈와 슈슈등의 복(히)미 악지(하)고 공주 이(하) ㄷ 부복홍평신(히)미 상식이 공주 슈등의 나아가 준을 줍고 승르 부어 공주 전의 진(하)고 악작(하)여 경풍년곡을 주(하)미 공궤 바다 상식을 주시면 상식이 바다 티황티후 좌전의 궤진(하)면 티황티후 잔을 바다 상식을 주시고 상식이 공주 전의 진(하)미 공궤 췌(하)고 주(하)준(하)여 거음(하)를 밧고 준을 즈은 지 부복홍편신(히)미 이(하) ㄷ 부복홍평신(하)고 슈등의 니르러 상식은 준을 밧고 공주는 취좌(하)를 시(하)도 ㄷ 취좌(하)고 악지(하)미 좌우 상궁이 황대를 인도(하)와 황티후 슈정전의 나아가 북향 입(하)시(하)미 상식이(후략)²²⁾

21) 『豊都監儀軌』, 송방송, 『한국음악사논총』, 민속원(1999), 339 쪽에 이 부분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인용한다.

22) ()는 다른 글씨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인데, 현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르게 보이도록 했다는

태황태후에 대한 공주의 현작지례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설명되는 의례의 절차는 『풍정도감의궤』에서 밝히고 있는 현작지례의 절차와 완전히 동일하다.²³⁾ 樂作과 樂止의 절차, 代致詞의 절차, ‘부복흥평신’을 창하는 것 등이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 치사의 내용까지 서술되는데 이 부분은 번역하지 않고 원토를 하거나 어떤 구절은 주쌍행의 형식으로 번역까지 달아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권21과 권22의 내용은 어떤 ‘의궤’를 가져다 놓고 중간 중간에 작품과 관계된 인물을 삽입하면서 그대로 번역하여 옮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이 부분에서는 악기의 배치 상태와 악기의 종류와 수, 文·武舞의 명칭과 무희의 복식과 상태, 연회에서 불려지는 28 개 악곡의 악명과 가사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²⁴⁾ 어떤 의궤를 참고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조선시대 궁중 연회에서는 불려지지 않던 악곡들이 정리되어 있어 중국쪽 의궤를 참고하여 이루어진 장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위씨>는 소설로서는 실패한 작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의궤식 장면 묘사가 있다는 것은 작중 상황에 대한 사실감을 부여할 수

것 역시 대단히 특이한 구성이다.

23) 『풍정도감의궤』의 현작지례에 대해서는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태학사(2002), 312-316 쪽 및 송방송 외, 『국역 풍정도감의궤』, 민속원(1999) 참조

24) 참고로 악기 진설 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단폐상중화소악을 단지 동서의 버리니 휘 일과 박 일과 축 일과 어 일과 교방고 이오 장고 십과 편경 일과 편종 일과 반향 일과 현금 십과 가야금 십과 비파 십과 히금 삼십과 스 이십과 디금 십과 통소 삼십과 필늘 일백이오 등화소악을 단지 아리 버리고 휘 일과 박 일과 축 일과 어 일과 건고 일과 삭고 일과 응고 일과 교방고 이와 장고 이십과 편경 오와 편종 오와 방향 오와 현금 삼십과 가야금 삼십과 비파 삼십과 아정 삼십과 히금 오십과 싱 오십과 대금 오십과 당적 오십과 통소 오십과 필늘 오백이오 세악을 폐상의 버리고 고 일과 장고 십과 박관 삼과 소 스와 징 칠과 비 칠과 히금 삼과 싱 십오와 필늘 십과 적 오십과 방향 녹이오 녀악을 전년의 버리니 교방고 일과 장고 이와 적 십과 가야금 오와 히금 십과 현금 십과 비파 십과 아정 십과 싱 십과 디금 십과 당적 십과 통소 십과 필늘 오십이오 디악을 단폐 아리 버리니 휘 십과 박 십과 축 십과 어 십과 건고 오와 응고 오와 교방고 오와 장고 오십과 편경 십과 편종 십과 방향 십과 현금 오십과 가야금 오십과 비파 오십과 아정 오십과 히금 일백과 싱 오십과 디금 십과 당적 오십과 통소 오십과 필늘 팔백이오 황문고취를 버리니 고 십과 소 팔십과 징 팔십과 훈 팔십과 지 팔십과 적 팔십과 디금 구십과 필늘 팔백이오 춤추는 제를 디상디흥와 던덩 좌우의 버리니 문뒹 팔백이며 무뒹 팔백이오 무를 진흥미 듯변의 기일은 곱은 평정턴ㅎ디무니(이하 나머지 무용과 악곡 28 개의 가사가 모두 기재)”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길이가 너무 길고 장황해서 오히려 서사 전개에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V. 창작 의식과 작가층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다면 <위씨>는 상당히 특이한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제목에서부터 장면 설정과 서사 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독특하다. 이때, <위씨>의 특이함은 작품의 개성이나 독창적인 주제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갈등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달려가는 지엽적인 삽화들이 빈번하게 삽입된다는 점, ‘부분의 독자성’이라 해도 될 정도의 의례식 장면 묘사나 단순 나열에 불과한 일회성 인물이 나열되고 있다는 점은 역지로 생산된 소설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어떤 초보 작가에 의해 창작된 습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씨>의 작가는 사실성에 입각한 소설을 창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보다 합리적이고 인과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소설을 의도했을 가능성이다. 그런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경이나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의례식 구성을 고안하고, 나아가 실제 ‘의례’류를 참조하면서 창작을 했을 수 있다. 상소문이나 추문장 등 서식이 있는 글의 경우 반드시 별행 처리를 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것도 이러한 창작의식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아히 어뭇 품의 돌입하야 능히 세앗지 못흐는디라 오솔 붓들고 부러지저
울며 어미로 더부러 혼가지로 가고져 하니 소제 쏘흔 무익하고 달너여²⁵⁾

이 인용문은 가소저와 서소저가 엄승의 간계에 속아 경사로 올라가는 장면이다. 어린 아이들이 모친의 품을 떠나지 못해 매 달리는 상황이 서술되고 있다. 실제

25)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4.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장면은 당연한 구성이다. 그렇지만 부모 자식의 관계가 항상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설정되는 대하소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다. 또 세영이 엄승의 참소를 만나 유배를 떠날 때,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위현과 며느리가 걱정을 하는 대목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비록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삽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씨>의 어떤 현실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유배에서 풀려난 조소저가 경사로 다시 올라갈 때, 정작 조소저 자신은 깊은 원한 속에서 망설이고 있지만 시녀들은 “드토와 아미를 드스리고 식로 의상을 정제하야” 매우 분주하고 설레이는 행동을 한다.

또 奸人 경옥이 하양공주의 시녀인 경낭을 자기 편으로 유인할 때, 경낭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에 경옥이 궁중 생활의 외로운 처지를 장황하게 늘어놓자 비로소 경낭이 마음을 움직인다.

낭직 십팔 청춘으로 궁중의 속절업시 늙으리니 식증싱의 원앙과 길증싱의 기린이며 스품의 부부는 턴리의 덧덧하미오 외로운 난초의 혼 짝은 인정의 슬히여하미 또 봄희와 녀름 낮이며 가을밤과 겨울밤은 무미창즈를 슬오며 므음을 쫓는 쫓지라 즈고로 녀즈의 물식을 감동하며 정홍을 품으며 어나 사름이 그러치 아니리오마는 낭즈 정경은 싱각건티 울적하기 더욱 심하리로다²⁶⁾

악인들끼리의 동모 과정은 별다른 망설임이 없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씨>에서는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다. 주동자의 끈질긴 설득과 그런 소행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동조자의 처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의례식 장면과 더불어 <위씨>의 작가가 사실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에서 작품을 구상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갈등이 좀처럼 설정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창작의식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을 설정하다 보면 결국 악인에 의한 음모의 과정이 설정되기 마련일 것인데, 이 과정은 많은 환상성을 내포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작품에 대한 이러한 의식, 즉 사실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소설 창

26) <위씨오세삼난현행록> 권.

작 의식을 정말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 생산된 작품이 어색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면 자체가 아무리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작품 전체의 서사 과정이 유기적 통일성과 인과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위싸>의 작가는 어떤 부류의 존재였는지가 궁금해진다. 4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작품을 구성하는데 참고가 된 텍스트는 적어도 여러 종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소설 작품과의 교류가 있었음은 당연한 전제라고 하더라도 이외에 상당히 많은 종류의 서적들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의궤이다. <위싸>의 장면 구성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회나 혼례의 절차이고, 해당 장면들은 의궤의 직접적인 번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진법과 관련된 문헌, 궁중의 조화나 국문 상황을 밝힌 문헌이나 그림들, 각종 직제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는 문헌²⁷⁾ 등이 모두 직, 간접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은 궁중 종사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진법의 경우는 『兵學持南』과 같은 서적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 언해까지 이루어졌지만 그 외의 문헌들의 유통은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보아서 별도로 도움도 되지 않을 것들이다. <위싸>와 관련해서는 궁중 종사자 중에서도 상공의 부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접해야만 했던 부류가 이 상공들이다. 특히 궁중 혼례나 연회 장면의 묘사가 다른 장면에 비해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공들의 직접적인 관심사이기도 한 부분이다. 또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상공의 외로운 처지가 부분적이거나 언급된 것은 본다면 <위싸>의 작가가 상공이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7) 궁중 장면 묘사 시 상당히 많은 벼슬명들이 나열되고 있다.

VI. 결론

이상에서 고찰했듯이 <위씨>는 대단히 특이한 작품임에 틀림이 없다. 소설적 구성으로 본다면 영성하기 짝이 없는 습작에 가까운 작품이다. 그러나 장면 구성 방식에 있어서는 여타의 작품에서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당시 대하소설의 실제적인 창작 과정을 읽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작가층의 존재 가능성을 짐작할 수도 있다. 주지하듯이 대하소설은 작가의 치밀한 구성 하에 상당수의 다른 텍스트들과의 교섭을 통해서 창작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긴 작품이 생산될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하소설이 교섭을 시도하는 텍스트는 일차적으로 다른 소설이었지만 역사서나 사상서도 주요한 교섭의 대상이었다.

<위씨>는 ‘의궤 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의궤류를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서툰 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대하소설과 다른 텍스트와의 교섭 과정이 더욱더 확연히 보인다. 이와 아울러 궁중 종사자 특히 상궁의 부류가 직접 소설을 창작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위씨>의 장면 구성 자체에 대한 분석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씨>의 전체적인 성격을 서술했기 때문에 의궤식 장면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다. 다만 특이한 장면의 일부를 보여주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1. 회장 및 순차단락정리

1) <회장 제목>

(권수를 오른쪽에 기재한 경우는 위 아래의 회장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임)

<p>권지일 옥천동니북한거 소공부중우화란 금월옥절계동행 기친보환령남흔 호타하전파뉴적 조사방중도정화 권지이 삼군개가환장안 일쌍속녀예위부 은배원수대사마 괴봉부물영낭부 권지삼 이낭습낭빵영빅 증언부언낭위부 권지사(위시세디톡) 의적취증능허호 원슈진무강남현 원슈작서화의군 괴장회심귀턴도 농누가림편영은 봉차연합정빅우 권지오 농싱봉관관낙휴경 금지옥엽빅우랑 권지육 곤영제관치경흐 낭낙티후스슈둔 괴공진출토간적 윤석간계희정인 권지칠 감누설계소공묘 신경환흡십즈데 상부위금영숙녀 간인상계희현부 권지팔 괴무던정친신국 괴도부중조대화 환초공열부합원 우셔부가랑덩약 권지구 일초례호스다마 낭덕힝간인작용 티슈의구도시화 신인단거초공질 권지십 운남부형데기봉 하양공슈숙징난 용턴토군흥복죄 환은과일문신영 권지십일 경어스승명안출 위참정슈계회심 장금월관홍찰속 봉옥절반사션고</p>	<p>권지십이 낭디취결초함주 오공즈반계명옥 권지십삼 화형데우이여구 현부부호합즈금 권지십사 잉뉴당금방슈박 서령현취너쥬륜 권지십오 디월식녀상셔근심 설턴연가시랑증몽 신명어스일탄악 절의녀인낭신원 권지십육 아미만부즈봉괴부 톱익디군신의가혼 위네부승명영숙녀 가쇼저응상싱기남 권지십칠 장원낭낙연신흔 공규녀셔슈유명 권지십팔 황첩어득셔도흔 위샤인출의구명 권지십구 하양주호신인셔화 소부인청제저음시 윤소저왕의방츄관 위참정중환도부인 권지이십 권지이십일 장낙공유양척보 탁농문진널노부 권지이십이 장만슈길상요습전 진구작성효순스희 권이십삼 구화난간비헌계 동심장악인모사 권지이십사 권지이십오 권지이십칠 염라스명회김시 동문시현록염적</p>
---	---

2) 순차단락

1. 옥천산 백운담 옆 옥천동에 승상 위형은 부인 진씨와의 사이에 5 자 3 녀를 두었다.
2. 장남 위세혁(자는 자참)이 소운의 딸과 혼인하고, 15 세에 과거 급제하여 한림학사 어사태우가 되었다. 이들 부부는 금슬도 좋았으며 8 자 7 녀를 두고 백년해로했다.
3. 차남 위세영(자는 자화)은 태우 경찰의 딸과 혼인했으나 이유없이 부부금슬이 좋지 않다.
4. 위세영이 14 세에 과거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제수되었으나 형인 세혁이 한림학사인 이유로 병부시랑을 제수받았다.
5. 세영 경소저를 멀리하고 기생인 월향을 사랑하나 경소저는 더욱 행실을 단정히 하여 시부모가 경소저를 사랑한다.
6. 강동 소주 양곡현에 소경화란 사람이 있었는데, 부인 유씨와의 사이에 딸 난교를 두었다. 부인이 일찍 사망하자 소공이 난교를 애지중지하여 기르니 미모가 뛰어나고 총명하다.
7. 도적 양선이 민란을 일으키자, 소공이 의병을 모았다. 이에 소공의 집에 쳐들어와 가족을 죽였는데, 난교와 시녀 월앵만 살아남았다. 동네 사람들이 소家の 참변을 한탄하며 공의 시체를 거두어 묻어주었다.
8. 도적 양선의 악행이 조정에 알려지고 병부시랑 위세영이 정동대원수가 되어 출사한다.
9. 이때, 소소저의 나이는 14 세로 월앵과 함께 남북하고 주막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다.
10. 주막집 진대랑의 권유로 단오절을 맞아 소소저, 월앵과 함께 추천놀이 구경을 갔다가 현승 조황의 딸 지유를 만난다. 조소저가 남북을 입은 소소저를 보고 반한다.
11. 장사치 장오를 만나 소소저는 비취지환을, 조소저는 황금팔찌를 각각 구하게 된다.
12. 위세영이 강동 소주부 양곡현에 도착하여 양선의 난을 진압한다
13. 위세영이 강동에 머물며 군대를 정비하던 중 산 속 진대랑의 집에서 소소

저를 만나 신분을 속이고 지기가 된다. 이때 소소저는 본명을 밝히지만 여자라는 사실은 숨긴다.

14. 위세영이 소소저의 사연을 들어 알고, 소소저의 요청에 의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도적 양션을 죽인 경위를 말한다.
15. 위세영이 입신양명을 권하며 같이 경사로 갈 것을 원했고, 소소저는 망설인다.
16. 한편 소소저를 보고 조소저는 상사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에 조현승이 소소저에게 청혼하여 혼인이 성사된다.
17. 위세영이 고을 태수의 빈 공관을 신방으로 정해준다
18. 소소저는 여자의 몸으로 신랑 행세함을 부끄러워하며 혼인을 치루고, 조소저와 3일을 함께 지내며 여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노력한다.
19. 위세영이 조현승의 비범함을 보고 부도독으로 임명한다.
20. 혼인 후 3일째가 되자 위세영이 소소저와 함께 경사로 돌아가고, 조소저는 후에 따라오기로 한다.
21. 위세영이 경사에 도착하자 황제 기뻐하며 하례하고, 위원수에게 병부상서 겸 진국공을 제수한다.
22. 소소저는 월앵과 함께 위府로 가서 위승상을 만나 그간의 사정을 사실대로 고한다.
23. 위승상이 소소저의 열행을 칭찬하며, 위세영과의 혼인을 이루게 한다
24. 위가의 제 3공자 세창은 자는 자영으로 형의 혼인을 대단히 부러워한다.
25. 이때 조소저가 경사에 도착하여 소소저의 거처를 찾아 가서는 일의 전말을 알고 대경하지만 소소저의 행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26. 위부에서 소소저에게 빙물을 보낼 때, 가보인 비취지환을 같이 보내니 소소저의 비취지환과 짝이 맞았다.
27. 위승상이 또 다른 가보인 황금팔지를 빙물로 조소저를 세창과 혼인하게 하니 또한 빙물의 짝이 맞았다.
28. 소소저와 조소저 같은 날 혼인식을 거행하다
29. 진부인이 세영의 일처인 경씨의 처지를 안타까와 했으나 혼인 후 세영은 여전히 경소저를 박대하고, 위승상이 이런 세영을 준책하고 소소저에게도 가

지 못하게 하자 세영은 독수공방한다.

30. 이때, 천자가 춘경을 유람하다가 세혁과 세영을 불러 칠보시를 짓게 한다
31. 이후, 위승상은 세영의 소소저 침실 출입을 금하자 세영은 마지못해 경씨에게 가지만 보기가 싫어 다만 월향에게 정을 붙여서 세월을 보낸다.
32. 강남에서 수적의 난이 일어난다.
33. 수적 기호준은 열사의 기풍이 있는 사람이라 부자집만 도적질함
34. 출전시 강남 태수의 장계를 보고 수적의 인물이 좋다고 판단하여 덕으로 교화할 것을 주장했다가 정창호의 침소를 입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천자의 현명함으로 인해 도리어 정창호가 유배를 가게 된다.
35. 세영이 강남에 도착하여 기호준을 덕으로 교화시키고 천자에게 탁용할 것을 권유하는 장계를 올린다.
36. 한편 위부에서는 경, 소소저의 외로운 경상이 계속된다
37. 위승상은 구룡옥천과 쌍봉차두를 하사받아 후일 신물로 삼고자 했다.
38. 위부의 제 4자 세병이 등장한다
39. 세영 일행이 경사에 도착하자 천자가 기호준을 보고 인물에 반하여 병부상서로 제수하고, 세영은 초공에 봉한다 또한 기호준의 부하 이어명은 시어사에 화여받은 병부시랑에 조자연은 태학사에 제수된다.
40. 위승상이 기호준의 소식을 듣고는 놀라고 진부인은 혹시 딸 경난소저의 배필이 될까 은근히 기대한다.
41. 위세영이 비로소 부친의 허락을 얻어 소소저의 침소로 가나 소소저가 경소저에 대한 박대를 이유를 잠자리를 거부하다.
42. 위세영이 기호준과 담화하다가 구룡옥천에 대한 말을 하자 기호준이 또한 자기의 것을 보여준다. 짝이 맞음을 확인하고는 경난소저와 혼인을 한다
43. 천자가 과거를 시행하자 세창과 세병이 응과하여 급제한다. 세창은 중서사인, 세병은 시강학사에 제수된다.
44. 장원급제 축하잔치에 병부상서 여양이 참석했는데, 부인은 진씨이고 삼자 일녀 중 필녀 명란소저가 덕용이 빼어났다.
45. 여양이 위승상에게 칭찬하고, 여부에도 쌍봉차두가 있어 짝이 맞음을 확인하고 혼인을 성사시키다.

46. 이때, 천자의 딸녀 하양공주의 재용이 뛰어났다
47. 하루는 천자가 위부 제 공자들을 불러 칠보시를 짓게 했는데 이를 계기로 세혁은 이부상서, 세병은 추밀사, 세창은 태중태우 참지정사로 승진한다
48. 천자가 세병을 부마로 택하고, 공주와의 혼인후 여소저와 혼인하여 부실로 삼게 했다.
49. 조소저의 시비 옥매의 사촌인 경옥이란 자가 정창호와 결탁하여 위씨 집안을 모해하기 위해 비수를 품고 위가에 잠입한다. 기호준이 뱀으로 변하여 잡아서 대령하자 위승상이 문초하려 할 때 경옥이 달아난다.
50. 이후 경옥은 서울에 머물며 간험한 윤석(시랑)을 사귀. 윤석은 위세혁의 부귀영화를 이유없이 시기하며 원망하고 있었다.
51. 선시에 윤석에게는 색덕이 출중한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를 위가에 혼인시켜 일을 성사시키려 했다. 이에 윤석의 모친 방씨의 언니인 방첩녀에게 혼인 주선을 부탁하자 방첩녀가 거절한다.
52. 하루는 조정에서 윤석이 꿈을 빙자하여 누이와 기호준과의 혼사를 천자에게 간청하자 기호준이 거부하고, 대신들이 윤석을 방자하다고 하여 삭직시키다
53. 윤석은 분기탱천하고, 윤석의 동생 윤소저는 이미 자기의 혼인이 조정에서 거론되었다 하며 평생 기씨를 위해 수절할 결심을 하다.
54. 경옥은 조소저를 탈취할 계교를 꾸미고, 하양공주의 궁녀 경낭과 동모하다
55. 이때, 초공이 여전히 소소저와 운우지락을 나누지 못해 전전공공하던 차에, 기세한 장인 소공의 사묘를 빨리 말들러 소소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서둘러 사묘를 완성하고 소家를 새로 지으니 소소저가 대단히 기뻐하고, 이를 계기로 운우지락을 나눈다.
56. 소소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혜’라고 함
57. 기상서와 경난소저의 금슬이 화락한 중, 경난소저 남두성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8달만에 득남하다. 이름을 ‘춘광’이라 함.
58. 참정, 조소저 부부가 득남하다. 이름을 ‘용’이라 함.
59. 위부마와 여소저가 혼인하여 부부가 화락하고 여소저와 하양공주가 또한 화락한다.
60. 공주궁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경낭이 상을 들고 나오며 참정에게 추파를 보

낸다.

61. 참정이 미색에 동하여 다음날 경낭을 처소로 불러 정을 통하고는 이후 경낭에게 탐닉한다. 이로 인해 조소저와의 사이가 벌어진다.
62. 하루는 참정이 조소저의 침소로 향하다가 조소저와 오생이란 자가 정을 통하는 내용이 담긴 간부서를 발견한다. 또 하루는 간부서에 등장했던 오생이란 자와 조소저의 시비 춘앵이 수작하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다.
63. 이에 참정은 조소저를 죽일 마음을 먹고 있던 중 다시 조소저의 방에서 간부서를 발견한다.
64. 한편 윤석이 시어사 김현에게 청탁을 해서 황문 경황과 결탁하고는 기호준과 조도독을 역모죄로 참소한다.
65. 이로 인해 기호준과 조도독이 유배를 가게 된다.
66. 하루는 경옥이 개용단을 먹고 초공의 모습이 되어 초공이 참정의 조소저를 사랑하는 사건을 연출한다.
67. 위부의 제 5공자 세황은 자가 자명이고 시재가 특출하다.
68. 예부시랑 서명은 일찍 상처하고 남매를 약육하던 중 김현의 동생 김씨를 후처를 맞이했다.
69. 김씨가 남편의 총애를 믿고 남매를 무수히 박대한다.
70. 서명이 위부를 방문하여 세황과 딸 옥주와의 정혼을 성사시키자 김씨가 이를 시기하여 더욱더 남매를 구박한다.
71. 서명이 혼인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중 홀연 병이 걸려 사망한다. 이로 인해 혼인이 삼년 상 뒤로 미루어지게 되고 김씨의 남매에 대한 박대가 더욱 극심해진다.
72. 이때 경옥이 조소저의 시비 옥매를 매수하여 다시 김현에게 초공을 참소하는 상소를 올리게 한다.
73. 시비 옥매가 국문장에서 초공을 참소하니 초공과 조소저가 유배를 가게 된다.
74. 선시에 경낭이 미혼변심단을 구해 참정에게 지속적으로 복용시킴으로써 이때는 이미 참정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상태이다.
75. 기호준이 유배지에서 태수의 양아들 석공자를 만나 이가 곧 여상서의 아들

이자 여학사의 동생임을 밝힌다.

76. 경옥이 조소저의유배 행렬을 탈취하고자 했으나 마중나온 여태수에게 일당이 잡힌다. 여태수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 천자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부친의 만류로 그만둔다.
77. 윤석이 이 일을 알고는 여태수를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린다.
78. 초공이 적소인 운남에 도착하여 평안히 거거한다.
79. 경옥이 날이 갈수록 안하무인이 되어, 시비의 형용이 되어 아예 위부에서 경낭과 같이 기거한다.
80. 또 다시 부마를 모해하려고 계교를 꾸민다.
81. 여창이 운남에 도입하여 잃어버렸던 동생을 만난다
82. 위부에서 경낭이 부마와 참정 사이를 이간질하고, 참정이 공주에게 욕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위승상 경낭과 경옥을 잡아 문초하여 모든 사건을 실상을 밝힌다.
83. 암행순무를 하고 있는 경어사가 공궁랑이란 자를 만나 억울한 사정을 듣다.
84. 이때 강동에 천자의 사면령이 당도하자 조소저가 탄식하고, 운남에서는 기상서의 적소에 여태수의 주선으로 초공과 조독이 모두 모여 담화를 한다.
85. 한편 경어사가 관아에 가서 몰래 동정을 탐지하고 암행어사 출도를 하여 억울한 옥사를 해결한다.
86. 천자가 설과하여 위세황이 장원급제하고, 경부인의 제남 경춘과 소부인의 아우 소백옥이 급제함. 위세황이 중서사인, 경춘이 한림검토, 소백옥이 한림시강에 제수된다.
87. 이때, 서씨 남매는 김씨가 김현이 죽은 후 더욱 분함을 품어 더욱더 심한 구박을 받고 있다.
88. 유배갔던 일행이 동시에 귀경하고 위부 형제가 마중을 나가나 참정만 나오지 않았다. (승상이 아직 부자의연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
89. 여공자(석공자)가 부친 여상서 및 누이를 만나다
90. 유배에서 돌아온 세영이 조소저의 방으로 향하자 위태사가 준책하여 경소저의 방으로 가게 하니 드디어 운우지락을 이룬다. .
91. 조소저는 경사에 도착하여 친정에 돌아가 평생 부모를 모시고 살 것을 다짐

하지만 위태사의 경계가 이어진다.

92. 참정은 자기의 죄가 있어 조소저에게 가지도못하고 또 가지 않을 수도 없어 주저하고 있으며, 조소저의 참정에 대한 분은 날로 더해간다
93. 참정이 괴로운 심정을 여상서에게 털어놓고 담화하던 중, 수풀 사이에서 한 여자가 화전을 던지고 달아난다.(가소저라는 사람이 참정에게 구애하는 내용)
94. 태학사 가춘환의 아들 가연은 병부상서라 나이 30인데, 부인 진씨(여소저 모친의 아우) 슬하에 4자 2녀 : 장녀 추옥은 미색이나 덕이 없고, 차녀 추월은 경국지색으로 요조숙녀임.
95. 가시랑의 모친 하씨는 하태후의 친동생인데, 전일 하태후가 옥천동 중의 제 3자의 부실되면 좋다는 꿈을 꾸고, 옥린 한쌍을 주며 짝을 찾아 혼인하라고 함. 그러나 위태사의 거부로 혼인이 성사되지 않음.
96. 추옥소저는 동생을 시기하여 참정의 마음을 떠보고자 화전을 지어 던진 것임.
97. 경어사가 계속 순무를 하던 중, 난주 지방에 도착하여 민심을 탐지하다가 억울한 옥사가 있음을 알고 해결함.(추환이라는 자에게는 부인 화씨와 첩 벽씨가 있었는데, 벽씨가 화씨를 시기하여 내원이라는 자와 동모하여 태수의 애첩이 되어 화씨와 자식들을 죽이려 한 사건임)
98. 경어사가 이 일을 해결한 후, 추환을 아들 추앙을 경사로 데리고 감 경사에 도착하여 이부상서겸 도어사에 제수됨.
99. 추앙은 기호준의 집에 기탁하고 있는 부친 추환을 만남.
100. 유례없는 태평성세를 맞이하여 천자가 태호에서 수상유람을 즐기다.
101. 이 자리에서 천자가 신하들과 내기 바둑을 벌이는데, 가시랑이 소원을 말하자 그것은 바둑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 즉각에서 참정과 가소저와의 혼인을 주장함. 그리고 참정에게는 예부상서를 제수함
102. 이에 참정과 가소저가 혼인을 하니 조소저의 외롭고 고단한 신세가 더욱 심해진다. 이로 인해 조소저는 병이 들어 혼인식에 참석하지 못한다.
103. 혼인 후, 참정은 전일 화전을 던진 여자가 혹시 자기의 신부가 아닌가 의심하지만 여상서와의 대화를 통해 추옥일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한다.

104. 이후 참정이 조씨를 사렴하나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로 인해 조소저의 한은 더욱 깊어진다.
105. 참정이 조소저를 방문하여 자기의 죄를 말하며 사과하지만 조소저는 참정을 매몰차게 거부한다.
106. 세월이 흘러 가소저가 득남한다
107. 천자가 과거를 열고, 여상서의 아들 여공자(석공자)가 무과 장원으로 뽑힌다. 여공자는 추밀직사로 제수된다
108. 이때, 위부에서 옥난소저가 여공자 신과 혼인한다.
109. 서소저가 삼년상을 마치자 위태사가 혼인을 재촉하니 김씨가 양양불락하여 남매를 박대한다.
110. 서공자가 비밀스럽게 주선하고 외숙모인 황씨가 동생 황첩녀에게 부탁하여 사혼서를 받아낸다.
111. 이로 인해 서공자가 김씨에게 구타당하고 독약까지 먹게 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위세황이 구해준다.
112. 우여곡절 끝에 위세황과 서소저의 혼인이 거행된다
113. 하양공주가 위부 제 여인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다.
114. 이때, 위부 제 3녀 금난소저가 경학사의 아들 경어사·학 과 혼인을 한다
115. 한편, 윤혁의 동생 윤소저는 모친 방부인이 사망하자 외삼촌인 방추관의 집을 찾아 소주로 간다.
116. 위부에서 참정과 조소저의 불화가 계속되던 중, 진부인이 참지 못해 조소저를 잡아가서 길게 준책한다. 그러나 조소저의 참정에 대한 분은 쉽게 풀리지 않아 이들 부부의 불화는 계속된다.
117. 또 한해가 지나고 장태후의 탄일이 다가오자 천자가 위씨 제 부인을 모두 들라고 명한다.
118. 이에 참정이 다시 조씨에게 가서 부드러운 언어로 설득하여 조소저가 연석에 참석하겠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조소저와 참정이 화해한다.
119. 이때, 황제가 선릉에 행차하던 중, 방추관이 길에서 원정을 올려 윤소저의 혼인을 주선하자 천자가 사혼서를 내려 기호준과 혼인하게 한다. 이후 기호준과 윤소저 사이는 화목하다.

120. 장성태후는 천자의 친모라. 정월초하루를 맞아 수연을 배설하니 위부 제부인들이 참석한다.
121. 이날 궁중연석의 상황이 두 권에 걸쳐 묘사된다.
122. 잔치가 끝나고, 태황태후, 황태후가 위부 제부인들에게 많은 하사물을 내림.
123. 이후 위부의 태평이 이어짐
124. 이때 엄승이 득세하여 천자의 총애를 받게 된다.
125. 이에 위부 제인과기호준 등이 모두 벼슬을 사직하고 남경으로 내려간다.
126. 한편 추옥은 시비 향월, 김씨와 모의하여 동생을 해치고 참정과 혼인할 계교를 생각하다.
127. 엄승의 아들 세번이 재살을 삼기 위해 기회를 구하고 있었는데, 김씨의 사주를 받은 엄승의 측근인 조문화가 가소저와 서소저를 천거한다.
128. 조문화가 남경으로 두 통의 편지를 보내, 가소저의 모친과 서소저의 아우가 사망했다고 한다.
129. 위태사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의심하여 미리 액을 방지하여 두 소저를 경사로올려 보낸다.
130. 두 소저가 경사로 향하던 중 한 객점에서 습격을 받아 엄부로 잡혀 간다
131. 위태사가 준 편지를 보고는 탈신하여 성호도사를 찾아 간다 가는 도중에 이미 위태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 동행한다.
132. 엄승이 이에 화가 나서 위씨 제인들을 역모죄를 참소하여 국문이 열린다.
133. 국문장에서 세영이 강개한 말을 했다가 엄승의 노를 만나 곤장을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른다. 이때, 월향이 등문고를 치고 원정을 올려 죽음을 면하고 유배를 가게 된다. 그 나머지는 남경에서 근신하게 된다
134. 가, 서소저가 성호관 입구에서 엄승의 방을 보고 나온 포정사에게 잡힐뻔했으나 갑자기 나타난 성호도사의 도움을 위기를 모면한다.
135. 초공에서 태수의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136. 진태수의 딸과 초공의 2자가 정혼을 한다.
137. 엄승이 진태수에게 초공을 죽이려는 전갈을 보내나 진태수가 거부한다. 이로 인해 진태수도 삭탈관직된다.

138. 명춘을 당하여 명부들이 조회할 때, 태황태후가 하양공주를 그리워 하자 천자 역시 비감해 한다.
139. 천자가 시어사 여경과 임윤을 불러 治亂에 대해 담논하던 중, 여경과 임윤이 엄승의 죄상과 세영의 충직을 고한다.
140. 천자가 뉘우쳐 임윤에게 엄승을 논핵하는 표를 올리게 한다.
141. 추옥소저가 일을 도모했다가 오히려 침정이 역모죄를 입자 다른 묘책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여 병이 나서 사망함.
142. 김씨가 잠이 오지 않아 전전반측하던 중 추옥소저가 울며 저승사자에게 잡혀가는 광경을 목도하고는 개과천선하다.
143. 이때, 엄승을 탄핵하는 상소가 오르자 마침 가시랑이 엄승의 가, 서소저 탈취 사건을 고한다.
144. 엄승 부자에 대한 국문이 열린다.
145. 이에 엄승 부자는 참수되고, 조문화, 향월은 유배를 간다. 김씨는 서공자와 친한 조신들이 그 개과천선을 고함으로써 용서를 받는다.
146. 이로 인해 천자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위씨 제인들이 사면된다.
147. 백성들이 다시 백성들이 다시 태평성세를 누림.
148. 가, 서소저가 이 기별을 듣고 위부로 돌아온다.
149. 자손 사항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아울러 ‘후록’이 있다는 말로 전체 이야기가 종결된다.

참고문헌

- 『위씨오세삼난현행록』, 27권 27책 장서각 소장본
『위씨현행록』, 27권 27책, 장서각 소장본
『兵學指南演義』, 군사문헌집17, 국방군사연구소, 1995.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서울: 교학사, 1981.
사진실, 『공연문화의 전통』 서울: 태학사, 2002.
송방송 외, 『국역 풍정도감의궤』 서울: 민속원, 1999.
송방송, 『한국음악사논총』 서울: 민속원, 1999.
최수경, 「명말청초 소설 형태의 변화」, 『중국소설논총』12집, 2000.

● 투고일 : 2003. 1. 30

● 심사완료일 : 2003. 9. 15

● 주제어(Key words): 위씨오세삼난현행록(*wissiosesamnanhyungaingrok*), 의궤(*Wuigui*), 상궁(*court lady*), 습작(*a study*), 삽화(*episod*), 환상성(*fantastic*)